

책과 함께 두근두근

동아리플러스+ 하트하트책놀이

하트하트책놀이'는 올해 상반기에 책놀이지도사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이다. '책놀이지도사'는 책을 재미있게 읽고 책을 소재로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여 아동이 책을 좋아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이 학습정보 공유와 재능기부에 뜻을 같이했다. 하트하트책놀이라는 동아리 이름은 책을 마주할 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하트하트로 표현한 것이다. 회원들은 코로나19로 모이기 힘들어 7월에야 첫 만남을 가졌다. 하트하트책놀이는 월1회 모임을 가진다. 매달 모임 때마다 책에 맞는 교구를 직접 만들어 책놀이를 실습해 보는 등 역량강화를 위한 스테디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단체로 봉사활동을 하기 힘들어서 개별로 어린이집 등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동

아리는 앞으로 모두 모여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에서 책놀이 재능기부 활동을 많이 할 것이다. 하트하트책놀이 동아리 김미정(58세·하단동) 회장은 4세인 손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책놀이 수업에 처음 발을 디뎠다. 예전에 구연동화를 배웠지만 좀 더 책을 활용한 놀이를 알고 싶어서 수강을 했는데 수업내용이 좋아서 동아리 가입도 하고 회장직까지 맡게 되었다. 김 회장은 책놀이지도사 과정 수료 후 손자와 손자친구를 모아놓고 책을 이용한 여러 가지 놀이를 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우유갑과 장난감 블록으로 기차를 만들어 그것을 활용해 '덜덜덜덜 기차'라는 책을 실감나게 읽어 줬다.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나도 아이들 호응에 덩달아 신나고 즐거웠고 젊어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요즘 유치원에서 책놀이 수업 봉사도 하고 있다.



프리랜서 강사인 이성미(38세·갑천동) 부회장은 본인이 하는 방과후 수업 내용을 더 알차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이 부회장은 책놀이지도사 과정을 수료하고 자신의 수업에 바로 활용하고 있다. 그녀는 앞으로 초등책놀이, 노인책놀이 과정도 배워서 전 연령에게 수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녀는 "책놀이 수업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배우는 보람도 느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심폐소생술의 3고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고우니아카데미 응급처치 수업 열려

10월 5일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에서 '생활안전과 응급처치' 수업이 열렸다. 심폐소생술의 설명과 실습은 수강생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위기의 순간에 유용한 응급처치 요령을 알아보자.

4분 안의 심폐소생술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가슴 압박은 의사가 사망 판단을 내리기까지 멈추면 안 된다. 압박은 119대원이 도착했거나 환자가 눈을 떴을 때 멈춘다. 인공호흡은 하지 않아도 된다.

심폐소생술 하기 전 '괜찮습니까?' 물으며 환자 어깨를 두드린다. 주변 사람

의 특징을 지목해 도움을 청한다. 예를 들면 '빨간 옷 입으신 분은 119에 신고해 주시고, 파란 모자 쓰신 분은 자동심장충격기 가져와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5초 안에 환자 몸 상태를 확인한다. 가슴 압박은 손 아랫부분의 손꿈치로 가슴뼈 아래쪽 1/2지점을 누른다. 압박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120회로 1초에 2번 누른다고 보면 된다. 119에 신고를 하면 전화를 끊지 말고, 스피커 폰으로 돌리고 119요원 지시사항을 따르면 된다. 화상통화로 119요원이 하는 동작도 보여준다.

김미연 평생학습구민기자 cross19700@naver.com

우울했던 코로나를 날려 버려요!

부산시 평생학습 SNS 홍보활동가 발대식 및 플래시몹 이벤트



'오르자! 오르자! 오르자! 흥이여 오르자!' 다대포 분수 광장에서 30여 명의 주민이 디바이모의 '오르자' 음악에 맞추어 경쾌하게 춤을 추었다. 춤바덴스를 활용한 플래시몹이다. 플래시몹이란 플래시를 터트리듯 눈 깜짝할 순간에 함께 모여서 음악에 맞춰 춤과 움직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체댄스 활동이다. 9월11일 오후 다대포 임해 행정센터에서 '부산시 평생학습 SNS 홍보활동가(인플루언서) 발대식'이 있었다. 이어서 장소를 다대포 낙조 분수 광장으로 옮겨 플래시몹 댄스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사하구 동아리연합회 회원 8명을 포함하여 중구, 연제구, 남구의 4개 구 총 32명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산의 평생학습을 홍보하고자 계획되었다. 다대포 자연의 아름다운 전체 환경을 알리고자 다대포 주변과 낙조분수를 배경으로 촬영하였으며 차후 유튜브 '부산 평생학습 홍보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강균 평생학습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

사하배움마당 배부처 : 사하구청, 각 동 민원실, 도서관, 복지관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하배움마당 VOL.33



사하배움마당은 사하구 평생학습 구민기자가 만드는 평생학습 소식지입니다.

발행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전화 : 220-4801-6 팩스 : 220-4809 발행일 : 2021. 10. 20.

장애인을 위한 행복한 가을 나들이

사하온누리 평생학습여행

"아는 팔까요? 씨앗이 이렇게 생겼네요." "팔 아니면 녹두예요." "아는 팔 종류고 이름이 좀들팔이예요 야생에 자라는 콩이나 팔 앞에 돌을 붙여요." 가을빛이 가득한 9월의 오후, 을숙도 낙조정을 지나 예쁘게 난 버들가람길을 배경으로 장애인들이 어울려 걸었다. 어느 만큼이나 갔을까 멈추어서더니 길옆에 자라고 있는 이름 모를 풀을 뜯어 들고 생태고우니 해설사와 참가자가 묻고 답하느라 소란스러워했다. 팽나무를 가리키며 묻기도 하고 나무의 작은 가지 사이에 거미줄을 치고 숨어있는 노란색의 거미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깔깔거리며 웃고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기도 하는 목소리가 강변으로 울려 나갔다.



사하구 장애인들이 사하온누리 평생학습을 여행 중이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구내 장애인 100여 명에게 지역 사회의 생태와 역사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현장 체험 학습 '사하온누리 평생학습 여행'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야외활동을

통하여 배우는 즐거움과 지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20회를 운영하며 생태고우니와 역사고우니 20명의 해설사와 함께 3개 분야 7개 코스를 탐방한다. 혼자서도 산책은 할 수 있지

박강균 평생학습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

읽고 쓸 수 있는 나를 칭찬하고 싶다

쓰담학교 어르신 5명 공모전 잇단 수상 '화제'

사하구 평생 학습관 쓰담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어르신 5명이 공모전에서 잇따라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한국문해 교육협회 주최 제17회 성인문해 학습자 백일장 체험수기 부문에서 손충자 씨가 늘 배움상을, 제10회 전국성인문해 시화전에서는 손풍자 씨가 시화 부문에서 우수상을, 한양순 씨는 짧은 글쓰기 부문에서 격려상을 수상했다. 또 2021년 부산 성인문해시화전에서는 김유자 씨가 우수상(부산교육감상)을, 이종여 씨는 장려상(부산 인재평가 교육진흥원장상)을 받았다.

손충자(59세·다대동) 씨는 '의지의 웨프 손충자 요리책'을 썼다. 전직 교사 재직 때 쓰러져 기억 상실, 언어장애, 오른손과 왼쪽 다리에도 장애가 생겼다. 기억나지 않는 한글이 어려웠다. 왼손으로 글을 쓰고 왼손으로 요리도 배워서 제복처럼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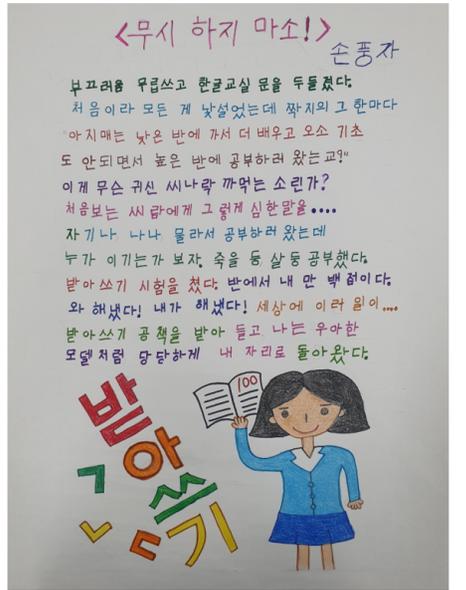
지의 웨프 손충자 요리책'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손풍자(71세·업궁동) 씨는 '무시하지 마소'를 썼다. 한 글만 첫날 짝지에게서 '그것도 모르요 낮은 반에 가소'라는 말을 들었다.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그날부터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공부만 했다. 받아쓰기에서 혼자 100점을 받았다. 매사에 자신감이 생겼고 새로 태어난 기분이다. 더 높은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 한양순(81세·괴정동) 씨는 몸이 너무 아파서 '처방'을 썼다. 요리 솜씨가 좋아 돈은 많이 벌었지만, 글을 모르는 바보라고 남편에게서 구박을 많이 받았다. 심장 수술을 하고는 요리도 그 전에 배웠던 한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기억을 되찾으려고 다시 공책과 연필을 잡았다. 글을 쓰는 시간에는 몸 아픈 것을 잊어서 공부가 '처방'처럼 여겨졌다. 더 배워서 외국에 근무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 김유자(67세·다대동) 씨는 '먹기 싫었던 감자밥'을 썼다.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려서부터 남의

집살이로 이집 저집 팔러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웃음이 사라진 지난날들을 생각했다. 그 삶을 이겨낸 나를 칭찬하고 싶다. 혼자서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꿈이다. 이종여(67세·다대동) 씨는 '올리 사랑' 편지를 썼다. 요양원에 계시는 엄마에게 올리는 편지다. 아버지와 오빠는 방에서 쌀밥 '드시고' 엄마와 딸은 부엌 찬 바닥에서 쌀보다 흰 무시 밥을 먹었다. 딸로 태어나서 고생한 것이 평생 한이 되었다.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메뉴판을 읽고 음식을 주문하고 싶다.

수상자들은 고단했던 삶과 늦게 글을 배워서 부끄러워했던 세월을 글로 승화시켜 공모전 수상의 기

쁨을 얻었다. 더 열심히 배워서 마음껏 웃는 활기찬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필분 평생학습구민기자 shipbun@naver.com



<무시 하지 마소!> 손충자

부끄러움 무릅쓰고 한글교실 문을 두들켰다.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었는데 짝지그 한마디 "아지매는 낮은 반에 가서 더 배우고 오소 기초도 안되면서 높은 반에 공부하러 왔는교?" 이게 무슨 귀신 새나라까워는 소린가? 처음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심한말을... 자기나 나나 몰라서 공부하러 왔는데 누가 이기는가 보자, 죽을 등 살등 공부했다. 받아쓰기 시험을 쳤다. 반에서 내 만 백이었다. 와 해냈다! 내가 해냈다! 세상에 이러 윈이... 받아쓰기 공책을 받아 들고 나트 우아한 모델처럼 당당하게 내 자리로 돌아왔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을숙도

사하자연학교 길을 따라

(5) 을숙도버들가람길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사하구는 자연을 배움터 삼아 생태 고우니 해설사들이 상세하고 재미있는 해설을 들려주는 사하자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하배움마당>은 사하자연학교 코스를 직접 따라가 보며 체험하는 기획을 시작한다. 각 탐방코스의 매력을 소개하고 사하의 자연을 느껴보고자 한다.

비가 올 듯 하늘엔 오통 구름인 날씨가 을숙도 가람길을 더욱 운치스럽게 한다. 사하구 사하자연학교가 10월12일 오전 9시~11시까지 열렸다. 비가 온 뒤라 꽃과 나무들이 더 선명하였으며 이 날은 장림에 있는 효림초등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왔다. 코로나19로 오랜만에 밖에 나온 학생들은 너무 좋라며 왁자지껄하여 을숙도는 생기가 있었다.

버드나무가 있는 곳에서 부영이 선생님의 강의가 이어졌다. 을숙도에는 을숙도를 지키는 나무와 을숙도를 보기 좋게 심은 나무들이 있다. 을숙도는 모래섬이라 바람을 이겨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한다. 나무를 심을 때 기후 변화를 생각하여 심어야겠다.

식물이다. 우리나라 민들레 같은 본래의 식물들을 점령하여 죽인다고 한다. 갈대와 역새는 비슷하게 생겼다. 갈대는 갈색이 된 대나무와 비슷하여 갈대라고 한다. 역새는 산과 물가에서 자란다. 물가에서 자라는 물억새는 잎을 만지니 이파리가 역새서 종이에 베이는 느낌이다. 피도 많았는데 떠는 봄에 어릴 때 새순을 뽑아서 씹으면 달콤해 껌 같다. 줄기가 마른 하얀 피는 뽑아서 씹으면 껌 같기는 하나 보기 좋은 걸로 대신 했으면 한다. 을숙도는 양미역취가 많아 제거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삼락공원에는 제거 작업을 하지 않아 많다고 한다.

을숙도는 버드나무가 많이 자생한다. 버드나무는 이순신 장군과도 친숙한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이순신장군이 무관이 되기 위해 시험을 보러 갔다가 낙마를 했다. 그 때 버드나무를 잘라 부목을 했는데 부목을 한 버드나무가 진통을 낮게 하는 아스피린 성분이 들어 있어 빨리 나았다고 한다. 강아지와 식물인 수크령은 전쟁 때 우리에게 저 도망가는 일본군을 우리 군사들이 수크령끼리 묶어 일본군을 넘어지게 한 고마운 식물이라고 한다. 울산에서 맨 처음 발견한 울산도깨비바늘은 아이들의 놀잇감으로 좋았다. 씨를 떼어 옷에 붙였다. 옷에 붙인 울산도깨비바늘을 움직이면서 떨어지게 했다. 아이들이 좋아했고 운동 효과도 있었다. 을숙도는 쉼네쿨도 많았는데 부리를 깨어 말려서 끓여 먹으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많아 갱년기 여성들에게 좋다고 한다. 쉼네쿨도 다른 식물들을 감아 죽게 한다. 그러나 불이 났을 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버들가람길 안으로 들어가니 미국쭈부쟁이와 양미역취가 있었다. 미국쭈부쟁이는 귀화

우리 주위에 생태교란종들이 자꾸 늘어난다. 기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외래품에서도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도관에 갔다. 어도란 물고기 길이다. 장애물에 의해 물고기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보다 쉽게 이동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하천에 있는 장애물이 물고기의 오르내림을 방해 할 경우 어도는 물고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준다. 이날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날 즈음 물고기떼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니 아이들이 신기해 환호성을 질렀다. 백로도 물위에서 고기를 잡아먹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는데 학생들이 온다하여 특별히 개방했다. 빨리 코로나19가 끝나 아이들이 개방된 어도관을 보러 나왔으면 좋겠다.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을숙도 갈대 관찰하기



옷에 붙인 울산도깨비바늘 떼어내기



을숙도수크령군락지



묵묵히 평생학습 듣다 보니 어느 날 강사

평생학습 러닝스타★ 강경화 씨

도서관으로 학교로 총칭무진 활발한 활동 “도움안된 배움 없었다”

강경화(51세·장림동) 씨는 아이들에게 독서지도, 글쓰기 지도, 역사수업을 하고 있는 사하구의 주민강사이다. 강사뿐만 아니라 행복학습 매니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처음 그녀가 평생학습을 접하게 된 이유는 커가는 자녀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했기 때문이다. 소심했던 성격의 그녀가 아이를 키우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평생학습을 듣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다.

그녀가 평생학습을 시작한 것은 2014년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했던 ‘방과후논술’ 강좌이다. 그 후 인문학 지도사, 진로 지도사, 인성 지도사, 자기주도학습 지도사, 명품강사 양성과정 등 시간이 허락하는 한 평생학습관에서 많은 강좌를 들었다.

그녀는 특히 2015년에 개설되었던 ‘행복학습 매니저 1기 양성과정’을 듣고 사하구의 평생학습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멘토로 활동을 시작했고 그 후 역사수업과 북아트 수업을 하며 경험을 쌓았다. 평생학습을 하며 만났던 어떤 사람들은 그 많은 수업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녀는 그 어떤 수업도 도움이 안되는 게 없었다고 한다. 그동안 했던 많은 공부들이 그녀가 강사생활을 하는데 또 다른 지식과 경험이 되었다.

주민강사인 강경화 씨는 평생학습 매니저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평생학습 매니저는 강사를 수강생에게 소개하고 수업내용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부끄러움이 많은 그녀에게 행복학습 매니저는 또 다른 도전이었다. 처음에 그녀는 남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사하구 평생교

육과의 배려로 역량강화 수업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었다. 반복해서 강의 소개를 편안해졌다. 강의 모니터를 많이 듣다보니 이제는 강사소개와 강의소개를 편안해졌다. 강의 모니터를 많이 듣다 보니 강사의 자질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에게 다른 강사의 강의는 영양분이 되었다. 주민강사와 행복학습 매니저를 하는 중에도 디지털대학을 다니며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리포트도 쓰고 출석도 챙기며 평생학습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 당시 그녀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뒷바라지도 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다.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고 응원해준 남편 덕분이라고 말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남들보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뒤처지지 않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그녀가 평생학습을 하는 이유이다. 강사는 강의준비를 위해 계속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어 좋은 직업이라고도 했다. 수업하며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도 즐겁다고 한다. 요즘 그녀는 주로 아이들 대상으로 역사수업, 독후활동 수업, 글쓰기 수업, 진로수업을 하고 있다. 도서관으로 학교로 배달강좌로 총칭무진 활동하고 있는 그녀의 하루하루가 보람되길 바란다. 또한 그녀의 활동이 주민강사를 꿈꾸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다.

김정숙 평생학습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해 봐요

최근 환경오염과 함께 유기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때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 강의를 열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먹거리와 생활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다.

강의는 9월 9일부터 12월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 까지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 강사는 동아대학교 오주성 교수이며 수강생은 23명이다.

강의 내용은 재배의 기원과 현황, 작물분류, 재배환경 등 유기재배 기술과 재배관리, 병해충관리, 토양관리 등 유기농업의 이해 친환경농산물 종류, 인증마크, 품종과 육종, 유기원에 등이다.

유기농업 기능사 국가자격증은 2005년 유기농업기능사로 신설되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은 1년에 3번 필기,(1월,4월,6월) 실기 예정이며 년 초에 발표한다. 1차 필기시험은 객관식 60문항이며 시험시간은 1시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2차 시험은 단답형이며 필기시험 20문항 시험시간

은 2시간 정도이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시농업전문과정 80시간을 이수하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진료는 유기농업 관련 단체, 유기농업 가공회사, 유기농산물 유통회사 각 지자체의 환경농업 담당공무원,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 연구기관의 연구원 국제유기식품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책임자 및 조사원, 소비자단체, 환경보호단체, 사회단체 등 도시농업관리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유기농업은 오직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을 말한다. 단순히 자연보호 및 농가소득증대라는 중요성을 떠나, WTO에 대응하여 자국농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며, 아울러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이라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들이 중요할 것 같다. 지금 수강하는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모두 합격 했으면 한다.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학부모를 위한 독서지도교육

하반기 작은도서관 비대면 수업



코로나19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학부모들의 자녀 독서지도가 많아지고 효율적인 독서지도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다. 사하구 하반기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를 위한 독서지도교육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노을나루길 작은도서관은 10월 30일~ 11월20일 매주 토요일 '학부모를 위한 독서토론과 북퍼실리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등 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자녀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깊이 있는 독서력 향상과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북퍼실리티 학습을 한다.

꿈꾸는 작은도서관은 11월4일~ 12월9일 매주 목요일 '영어그림책 자녀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연다. 다양한 영어그림책의 세계, 연령에 맞는 접근 방법, 소리연습, 노래로 배우는 영어, 다양한 게임을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주제별로 분류된 다양한 영어그림책을 읽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하단꿈길 작은도서관은 11월4일~ 12월9일 매주 목요일 '초등부모를 위한 자녀독서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디지털시대의 독서교육의 중요성과 방향, 독서지도의 이해, 연령별과 발달단계에 따른 독서지도, 창의적 사고를 위한 독서교육법, 내 아이와 책으로 소통하는 대화법, 독서토론과 독후 글쓰기, 갈래별 글쓰기 지도법, 독서고민 나누기를 학습한다. 책을 가까이하고 자발적으로 읽는 습관을 키우고 바람직한 인격형성과 이해력, 감성력,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지도법을 배울 수 있다.

비대면(Zoom)수업을 통해 디지털시대에 맞는 학부모의 자녀독서지도 활용이 되길 기대한다. 접수는 사하구 통합예약홈페이지(<http://www.saha.go.kr/reserve>)를 통해 가능하다.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